

3. 세례요한과 예수

A. 세례요한 (3:1-12)

- 왜 광야인가?
  - 광야. 1) 외진 곳=> 중앙(힘/권력)에서 멀리 벗어난 곳=> 약대 털옷, 가죽 띠, 메뚜기와 석청(왕하 1:8)> 엘리야, 왕상 17-19 장 => 요한은 엘리야의 삶을 재생(마 11:14; 17:11-13); 2) place of renewal => 출애굽(구원의 장소), 호 2:14; 9:10; 13:5; 암 2:10; 5:25. => 새로운 출애굽 (사 40:3; 41:18; 43:19-20; 48:21; 51:3; 겔 36:33, 35, 38) => 회개의 세례
    - MT: A voice cries/is crying: "In the wilderness, prepare the way of the Lord..." (초점은 광야에서=> Retreat, preparation and invitation, communal)
    - LXX: A voice of one crying in the wilderness: "Prepare the way of the Lord..." (초점은 외치는 자=> Escape from the center, individual, resistance)
  - 그에게 나아와(ἔξεπορεύετο, were going out to him). 어디로부터 나오나?
    - 예루살렘(3:5) vs. 온(πᾶσα, all) 예루살렘(2:3) => 중앙지배체제 중에도 더러는 나왔다
    - 온(πᾶσα, all) 유대, 온(πᾶσα, all) 사방 요르단 => 요르단: 제국으로부터 탈출(수 3:14-17)
- 세례와 회개
  -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가? 안기부 역할 (cf. 막 3:1-6). 과연 세례를 받으러 왔을까? (표준새번역, 공동번역=> "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"; 개역=> "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")
    - "coming to his baptism (ἐρχομένους ἐπὶ τὸ βάπτισμα αὐτοῦ)"=> for or against?
    - 요한의 세례는 세상 이데올로기를 향한 심판(정치/종교)> 고로, 제거 대상(마 14:1-2)
  - 회개란? (μετανοέω << נָשׁוּב or נָחַם)> return, 되돌리다? 회개하다? 무엇을?
    - Q. (직접) 목적이 없다(ἀπο/ἐκ/ἐπι). 예) "죄"를 회개하다; 어떤 "행위"를 뉘우치다.
    - 하느님에 대해선, relent(화난 감정/마음을 누그러뜨리다). LXX 암 7:3 (μετανόησον κύριε ἐπὶ τούτῳ=> 이것을 회개하소서? => 이에 대해 마음/생각을 바꾸소서! => 통촉해 주시옵소서)
    - 결론. "... 에 대해 생각/마음(νοῦς)을 바꾸다" μετά 1. association with; 2. change, alteration; 3. after. Bruce M. Metzger, *Lexical Aids for Students of New Testament Greek* (3d ed.), p. 83

B. 예수의 세례

- 성령과 불 세례(3:11) 두 개의 사건? 혹은 하나
  - 성령세례 (요 3:5; 행 2 장)
  - 성령과 불=> 불의 역할 mixed: refinement and judgment (알곡과 쭉정. 쭉정이는 태워 없앴)
- 회개의 세례. 예외인가 모범인가
  - 예수의 세례도 회개의 세례인가(마 3:6 <= 막 1:4)? Yes/No? 어떤 의미에서?
  - "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"(3:15). 예수의 세례(그리고 삶)은 예외가 아닌 모범.
- 마가복음과 차이

	마태 3:16-17	마가 1:10-11
무엇이	하느님의 영	영 (성령?)
어디에	예수 위에 (ἐπ' αὐτόν)	예수 안으로 (εἰς αὐτόν)
음성이 누구에게	사람들에게 (This is my Son)	예수에게 (You are my Son)
예수가 본 것은	하느님의 영이 내림	하늘이 갈라짐, 영의 내림

- 마가복음에서는 성령과 더러운 영의 싸움. 전체. 모든 사람들은 한 가지 영을 받았다는 생각=> 문제는 어떤 영(이데올로기)
- 마태복음: "하느님의 영"과 다른 영(?)과의 싸움. 이것이 "마귀"로 발전(4 장) => 누구의 영
- "하느님의 영"(πνεῦμα θεοῦ, אֵלֹהִים הַיְהוָה => 창(1:2)은 새로운 창조를 암시. 역설적으로 현 제국주의(=>사탄의 체제)에 대한 정면도전 선언

-----  
생각해 보기

1. 예수가 세례를 주었나? (마 3:6, 11-16; 28:19). 왜 이렇게 썼을까? 목적/의미는?
2. 우리가 (세상으로부터) 받고 있는 도전은? 우리가 세상에 주는 도전은?  
(\*세상=지배이데올로기/제국의 복음/가치관)